

투데이 칼럼

부정을 긍정의 말(言語)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인간관계에서 성공과 실패가 왔다 갔다한다. 의사소통을 잘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성공자 지그 자글러는 '슬픈 관은 좋은 슬관이나, 나쁜 슬관이냐에 따라 우리를 정상으로 끌어 올릴 수도 있고 밑바닥에 묶어 둘 수도 있다' 라고 말하였다.

말은 사람의 미래를 움직이는 창조의 힘이 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인가 망가뜨리는 파괴력 등도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은 불만, 불신, 불평의 '3불'의 부정의 사고로 짜증나고 오해와 원망으로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 어떤 말을 선택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 행복한 감정적 능력이 될 수 있고, 불행케 하는 멸망의 능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 싫다'와 '~ 좋다', '할 수 없다'와 '못 한다'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프랑스 숙답에 '칼로 배인 상처는 쉽게 낫지만 말로 배인 상처는 평생 갈 수 있다'고 하였고 우리나라

숙답에도 '입술 30초가 마음에 한이 30년 간다' 라고 하였다.

다섯 살 된 아이의 손을 잡고 점쟁이를 찾아가 한마디가 있었다.

점쟁이는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은 불만, 불신, 불평의 '3불'의 부정의 사고로 짜증나고 오해와 원망으로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

실제로 그 말을 들은 소년은 세계적인 팝스타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되었으나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충격적이고 부정적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대스타가 되었지만 너무나 괴로워 술과 마약 등으로 강박감을 이겨내기 위해 방탕한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 마흔 세 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



김 양 옥 한국스피치·음변협회 전북회장

라는 것이다. 사람은 16세까지 자신에 대한 약 73%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고 긍정적인 메시지는 약 25% 정도만 듣는다는 연구도 있다.

따라서, 인간은 그대로 방치하면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 듣기가 쉽고 더 큰 문제는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적극적인 화문 스피치기법을 잘 터득해서 우리는 스스로 부정적인 인간 행세를 하는데 예를 들어, 성공을 가로막는 거짓말과 같이 이진 내기 할 수 없어,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사람들이 날 화나게 해, 인맥이 있어! 등 이런 부정적인 자신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현대는 감성 표현의 시대, 소통의 시대, 이미지 시대이므로 함부로 막 말하지 말고 긍정의 말이 긍정의 생활관으로 누구나 추구하는 화합, 행복, 건강, 성공자가 되는 길이다.

독자제언

등교 앞 둔 어린이 보호구역 절대 절대 서행해야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완화되어 교육부에서 단계적으로 학생들의 등교 시점을 검토 중에 있는 가운데 일부 차량 운전자들은 여전히 규정 속도(30km)를 지키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고 있어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두달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피드론에 설치된 47대 고정식 카메라와 경찰관이 현장에서 측정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과속 차량을 7,156건, 하루 평균 280대 가량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강조하는 측면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아보면 승용차의 경우 시속 20~40km 이하 속도위반 시 9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 시속 40~60 위반 시 1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20점이 부과된다. 무엇보다도 안전 운전의무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러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는 개정된 법에 대해 꼼꼼히 숙지하고 운행해야 하겠다.

어린이는 어른들의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보다 어린이가 우선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운전해야 하며 돌발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하여 운전을 하시길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정속도를 준수 즉각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운행하여 불의의 사고로 안타까운 일을 겪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 힘써야 하겠다.

김주일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행락철 나들이 갈 땐 문단속 단단히 하세요

5월이 다가오며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기간이 있다. 바로 30부터 5월 4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5. 5까지 약 6일간 쉴 수 있는 황금연휴다. 황금연휴가 다가오며 사람들은 가까운 곳이라도 놀러 가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 놓치는 부분이 빈집털이에 대한 위험성이다.

황금연휴기간 빈집털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을 비우는 동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먼저 창문 및 문의 시정장치를 단단히 잠구는 것이다. 여행을 가기 전 집안을 한바퀴 둘러보며 창문이 열린 곳은 없는지, 문이 잠기지 않은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서 절도범들이 쉽게 침입할 수 있는 곳을 점검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편물 정리를 하는 것이다. 우편물이 많이 쌓여있으면 절도범들은 빈집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가기 전 우편물을 정리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원

들에게 우편물 정리를 부탁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도어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문이 붙어있어 쉽게 비밀번호를 알아 낼 수 있으니 도어락의 비밀번호 누르는 곳을 알물습 등으로 한번 닦아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아간주거침입 절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야간에 손괴를 한 후 주거침입하여 절도를 하거나 2인 이상 합동, 흉기휴대를 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단순 주거침입만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위법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황금연휴가 다가오며 따라 여행의 설렘을 맛볼수 있지만 그 전에 빈집털이를 예방하며 여행이후의 슬픔에 대비하고 걱정없는 여행이 되길 바란다.

이병주 남원경찰서 도룡지구대 순경

사설

코로나 문제 당국의 말대로 해야 한다

코로나가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확진 환자의 수도 신규 사망자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 정도라면 의료진들이 잘 대처해줄리라는 믿음이다. 아마 그래서일지도 모른다. 며칠 전에 불교의 법회와 카톨릭의 미사가 2개월만에 재개되거나 일반인들의 정서도 느슨해졌다. 불나들이 행락객이 부쩍 늘었고 안전을 위한 몸 사리기 또한 그 실천이 좀 부족해보인다. 그리고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그러나 잘 판단해야 한다. 예전처럼 일상이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런 때일수록 자발적이고도 협조적인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지만 방역 당국이 시민에게 호소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다. 잊게도 당부했거니와 방역 당국이 '이제 됐습니다' 라고 보고의 말을 할 때까지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확진자도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 까닭이다.

거듭 지적하고 있거니와 일본을 반면교사의 사례로 보아야 한다.

일본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등한히 했다. 그 결과 누적 확진자 수도 사망자 수도 우리 한국의 그것을 넘어버린지 오래 되었다. 유럽의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프랑스와 독일도 그렇다. 그 나라의 국민들은 그동안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 협조하는 정신이 부족했다. 코로나가 정점을 찍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미국의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본보기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새로운 창궐 국가가 되었다.

거듭 말하거니와 예전과 같은 일상이 회복된 것은 아니다. 우리 전 북의 경우도 그렇다. 조심하는 정신태도를 아주 놓아버려서는 안된다. 이번에 신규 확진자가 1명 더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장 예매가 간절하기는 하지만 방역 당국이 호소하는 대로 해야 한다. 정상 영업이 간절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방역 당국이 하자는대로 해야 한다.

코로나 완전 퇴치의 마침표를 확실히 찍으려면 좀 더 참고 기다리자는 당부이다.

전북도는 대도약 행보 힘차게 보여야

전북은 대도약 행보를 힘차게 보여야겠다. 도지사과 고위 관계자들은 평소와 다른 말 그대로 자존 의식과 체질 강화로 새시대를 열어야겠다. 그것은 도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대도약 행보는 요원하다. 성공도 도지사가 말한 그대로 정책의 진화를 통해서 이를 수 있을 터이다. 물론 열기가 계속 뜨거워야 함은 물론이다.그래서 여기 다시 말하는데 전북도가 말한 10대 핵심 프로젝트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8대 역점 시책의 진척이 급급하다.

지역 발전을 약속한 현안들이 추진에 있어서는 터럭거리고 있는데 그러면 실망스럽다. 전북도는 정갈하게 강력하게 실행 발휘를 해줘야겠다. 해결해야 할 대상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전북도가 도민에게 여러 차례 언급하고 또 그 성취를 약속한 것들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들이 거듭 지연되면 낙후된 예정돼 있음을 잘 알고 있는 터이다.

전북도는 힘내야 한다. 발전 방향을 밝혔다가 나중에 뒀다 하는 일이

안 풀렸다는 식으로 변명의 말을 들려주어서는 안 된다.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뒤처진 낙후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말이지 전북도는 힘내야 한다. 이대로 세월만 가면 지역 발전은 요원하다. 이대로라면 지역 현안이 언제 성취의 모습을 보여줄지 전망하기가 어렵다. 예전에도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청사진대로라면 진척에 완료됐어야 할 사업들이 아직도 현안으로 남아 답답함만 안기고 있다.

도지사가 대도약을 여러 차례 선언한 만큼 무엇인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예전처럼 점잖은 행보는 마땅치 않다. 나중에 역부족이었노라며 헛된 울림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발전 프로젝트들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역점스러워야 한다. 발전 보폭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마음에 안든다고 여러 번 지적해 왔거니와 전북도는 진취적이야 한다. 도민들은 날마다 힘찬 행보를 보여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주매일